2025년 2월 3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관세, 딥시크, 고용 등 대형 이벤트의 한 주

한국 증시는 1) 트럼프 관세 뉴스 플로우 확산 여부, 2) 미국의 1월 고용, ISM 제조업 PMI 등 주요 경제 지표, 3)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 4) 아마존, 알파벳, 팔란티어 등 미국 빅테크 실적, 5) HD현대중공업, KB금융 등 국내 주요 기업 실적 이벤트에 영향 받으면서 업종 간 차별화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450~2,580pt).

이번주는 관세가 주식시장의 변동성 유발 재료가 될 것. 다만, 상기 3개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는 지난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여러 차례 나왔던 사안이었으며, 증시에서도 해당 수위의 관세는 선반영 해온 측면이 있다고 판단. 더욱이 미국 내 정치권, 기업, 유권자 여론 등에서 관세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불충분(국가비상경제권법), USMCA 협정 위반 여부 등 제약 사항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결국 관세 부과의 현실화는 증시 대응 시나리오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세부과 -) 맞대응 -)추가 관세 부과 및 타국가로 무역분쟁 전면 확산"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주가에 반영하기엔 시기상조라고 판단.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Market/ESG 이성훈
shl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월 31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연휴 기간 내 딥시크 쇼크, 빅테크 기업 실적, 1월 FOMC 등의 이벤트를 소화하며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매물 대량 출회되며 하락 (KOSPI -0.77%, KOSDAQ -0.06%)

1/27일~30일 간 설 연휴로 국내 증시는 휴장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 시장 내에서는 딥시크 쇼크,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 1월 FOMC 등의 주요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 연출. 주 초반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딥시크(DeepSeek)가 저비용으로 오픈 AI의 챗 GPT 모델과 견줄만한 성능을 갖춘 R1을 선보인 이후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미 증시 내 AI 관련 테마주들의 급락을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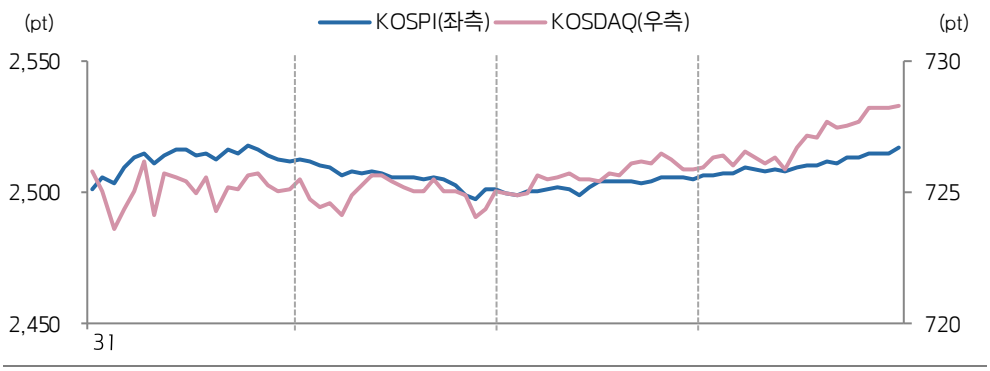
딥시크 쇼크는 지난해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밸류에이션 부담 압박을 받던 AI 테마주에 대한 명확한 차익실현 명분을 제공하며 27일 당일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 등 AI 유관 테마는 대부분 급락세 연출. 다만, 이후 단기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 속 리테일 자금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 자금 유입되며 AI 테마주들은 낙폭을 일부 회복. 여기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AI 관련 CAPEX 지출 규모를 보다 더 늘릴 계획이라는 점을 밝힘에 따라 AI 투자 기조가 유효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점이 안도 요인으로 작용.

한편, 1월 FOMC는 성명서 문구에 인플레이션 진전에 대한 문구가 삭제되었다는 점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시장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선언함에 따라 대체로 시장에는 중립 재료로서 작용. 31일(금) 국내 증시는 설연휴 간 이벤트를 소화하며 AI 반도체, 전력기기 중심으로 외국인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세를 보였으나, 바이오, 로봇, 소프트웨어 업종의 상승이 하락폭을 상쇄하며 우려 대비 지수의 낙폭은 제한.

업종별로 보험(+8.22%), IT 서비스(+5.3%), 금융(+2.12%), 음식료/담배(+1.73%), 운송/창고(+1.65%) 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종이/목재(-1.3%), 금속(-1.3%), 비금속(-1.3%), KOSPI(-0.77%), 제약(-0.5%)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1조 1,1679억원)은 금융(+1,507억원), IT 서비스(+1,474억원), 화학(+243억원), 보험(+237억원) 순으로 순매수, 기관(+2,859억원)은 전기/전자(+1,902억원), 제조(+1,609억원), IT 서비스(+1,110억원)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2 월 3 일	월	미국	S&P 제조업 PMI 최종	1 월	50.1	50.1
			ISM 제조업 지수	1 월	49.3	49.3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최종	1 월	46.1	46.1
			CPI (MoM)	1 월	-0.3%	0.4%
			CPI 근원 (YoY)	1 월	2.6%	2.7%
		중국	Caxin 제조업 PMI	1 월	50.6	50.5
		독일	HCOB 제조업 PMI 최종	1 월	44.1	44.1
		일본	제조업 PMI 최종	1 월	-	48.8
		휴장	중국 (춘절)			
		발언	애틀랜타 연은 총재			
		실적	포스코홀딩스, LG 화학			
2 월 4 일	화	미국	노동부 JOLTS (구인, 이직 보고서)	12 월	-	8098k
			내구재 주문 최종	12 월	-	-2.2%
		발언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실적	팔란티어, 토요타, UBS, 머크 앤드 컴퍼니			
2 월 5 일	수	미국	S&P 서비스업 PMI 최종	1 월	-	52.8
			S&P 종합 PMI 최종	1 월	-	52.4
			ISM 서비스 지수	1 월	54.5	54.1
		중국	Caxin 서비스업 PMI	1 월	52.5	52.2
			Caxin 종합 PMI	1 월	-	51.4
		한국	CPI (YoY)	1 월	2.0%	1.9%
		독일	HCOB 서비스업 PMI 최종	1 월	52.5	52.5
		일본	서비스업 PMI 최종	1 월	-	52.7
			종합 PMI 최종	1 월	-	51.1
		발언	제퍼슨 연준 부의장, 보먼 연준 이사, 리치몬드, 시카고 연은 총재			
		실적	알파벳, 알리바바, 월트디즈니, 우버, KB 금융			
2 월 6 일	목	미국	단위노동비용지수	4 분기	3.4%	0.8%
		유로존	소매판매 (YoY)	12 월	2.0%	1.2%
		독일	공장수주 (MoM)	12 월	1.8%	-5.4%
		회의	BOE 통화정책회의		4.50%	4.75%
		발언	월러 연준 이사			
		실적	일라이 릴리, HD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SK 이노베이션			
2 월 7 일	금	미국	비농업 고용자수 변동	1 월	150k	256k
			실업률	1 월	4.1%	4.1%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2 월	-	71.1
		발언	보먼 연준 이사, 쿠글러 연준 이사			
		실적	아마존, 네이버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트럼프 관세 뉴스 플로우 확산 여부, 2) 미국의 1월 고용, ISM 제조업 PMI 등 주요 경제 지표, 3)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 4) 아마존, 알파벳, 팔란티어 등 미국 빅테크 실적, 5) HD현대중공업, KB금융 등 국내 주요 기업 실적 이벤트에 영향 받으면서 업종 간 차별화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450~2,580pt).

31일(금) 미국 증시는 12월 PCE 물가 컨센 부합, 연준 위원의 완화적 발언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 이후 월말 리밸런싱에 따른 수급 변동성 속 트럼프의 관세 부과 소식으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하락 마감(다우 -0.8%, S&P500 -0.5%, 나스닥 -0.3%).

이날 발표된 12월 PCE 물가는 헤드라인(YoY 2.6%, 컨센 2.6%), 코어(YoY 2.8%, 컨센 2.8%) 모두 예상에 부합하는 양호한 수치를 기록. 1월 FOMC 성명서 상 "2% 인플레 목표" 문구를 삭제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증시 민감도가 높아진 상태였기에 12월 PCE 결과는 안도감을 제공할 법했으나, 트럼프의 관세 부과 소식이 이날 장중 미국 증시의 하락을 초래.

트럼프는 2월 4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게는 25%, 중국에게는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철강, 알루미늄, 구리는 2월 말~3월, 원유와 가스는 2월 18일 예정). 엔비디아 젠슨황 CEO와의 회동 이후에도 AI 기술 수출 통제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관세가 미치는 시장 반응은 개의치 않는다는 식의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는 점도 주중 증시에 고민거리로 부상할 것.

이 같은 트럼프의 관세에 캐나다는 약 1,000억달러 품목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으며 멕시코와 중국도 보복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는 등 이번주는 관세가 증시 변동성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

다만, 상기 3개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는 지난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여러 차례 나왔던 사안이었으며, 증시에서도 해당 수위의 관세는 선반영 해온 측면이 있다고 판단. 더욱이 미국 내 정치권, 기업, 유권자 여론 등에서 관세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불충분(국가비상경제권법), USMCA 협정 위반 여부 등 제약 사항들이 존재.

관세 부과를 증시 대응 시나리오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사실. 하지만 "관세부과 -> 맞대응 ->추가 관세 부과 및 타국가로 무역분쟁 전면 확산"이라는 최악 시나리오보다는 "일부 국가, 일부 품목 별 선 관세 부과 후 -> 협상"의 시나리오에 높은 확률을 부여할 필요.

관세 이외에도 주 초반에는 1월 ISM 제조업 PMI, 주 후반에는 미국의 1월 고용 결과가 차주까지 금리 및 달러 경로를 통해 증시에 영향력을 높이는 이벤트가 될 것(신규고용 컨센 15.0만건 vs 12월 25.6만건, 실업률 컨센 4.1% vs 12월 4.1%). 지난 12월 고용 호조 이후 연준의 인하 전망이 크게 후퇴됨에 따라 12월 CPI 발표전까지 주식시장은 위험회피심리가 확산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

또한 딥시크 사태 이후 엔비디아 등 AI 하드웨어 업종의 투심은 취약해진 만큼, AI 소프트웨어 업종은 기대감이 커진 상태이므로, 주중 알파벳, 아마존, 팔란티어 등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도 간과할 수 없는 대형 이벤트가 될 예정.

(다음페이지 계속)

한편, 주말 중 발표된 1월 한국 수출은 -10.3%(YoY)로 12월(+6.6%)에 비해 큰 폭 하락했으나,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라는 일시적 요인이 컸기에 컨센(-13.5%)보다 양호했다는 점은 안도 요인. 일평균 수출 역시 7.9%(YoY)로 12월(4.3%)에 비해 개선됐다는 점도 국내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부여해 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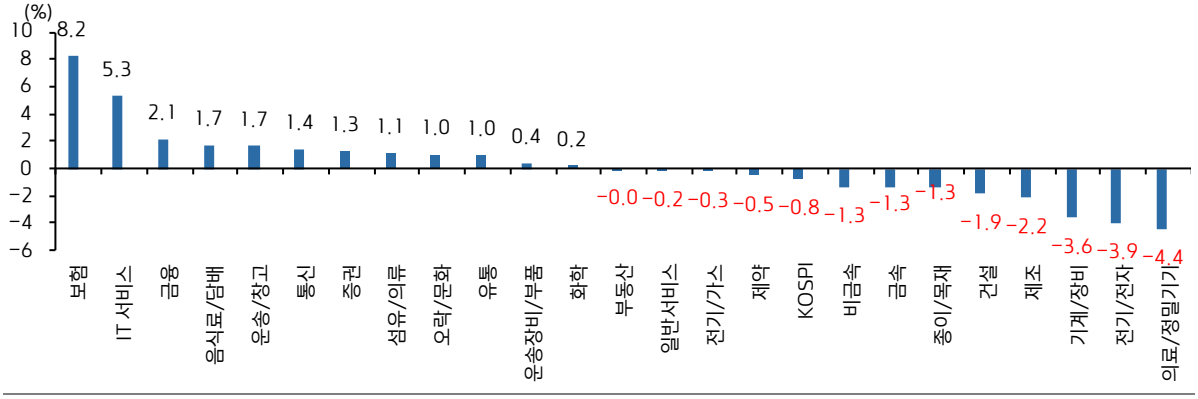
또 HD 현대중공업, KB금융, 신한지주 등 주도테마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 주주환원주들의 실적도 업종 순환매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 이상의 내용을 감안 시 이번주 국내 증시는 미국발 불확실성(트럼프 관세, 고용 등)에 노출되면서 변동성은 높아지겠으나, 주가 복원력으로 인해 지수 하단은 제한된 채 업종 별 차별화 장세를 연출해 나갈 전망.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2,517.37	-0.8	-0.8	4.9	4.9
대형주	2,514.05	-0.7	-0.7	5.2	5.2
중형주	2,768.33	-1.1	-1.1	4.2	4.2
소형주	2,127.32	-0.8	-0.8	1.6	1.6
코스피 200	333.36	-1.0	-1.0	4.9	4.9
코스닥	728.29	-0.1	-0.1	7.4	7.4
대형주	1,758.66	0.4	0.4	9.0	9.0
중형주	635.86	-0.7	-0.7	7.8	7.8
소형주	2,304.08	-0.6	-0.6	3.4	3.4
코스닥 150	1,233.16	0.3	0.3	9.2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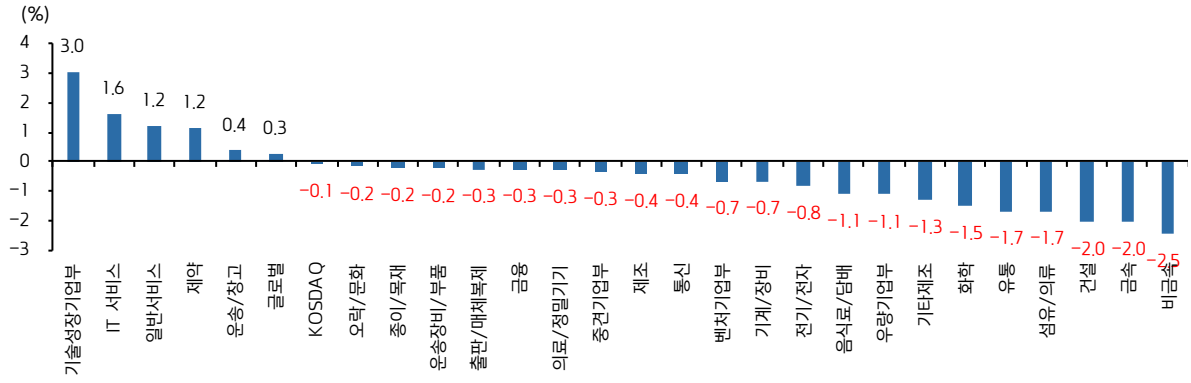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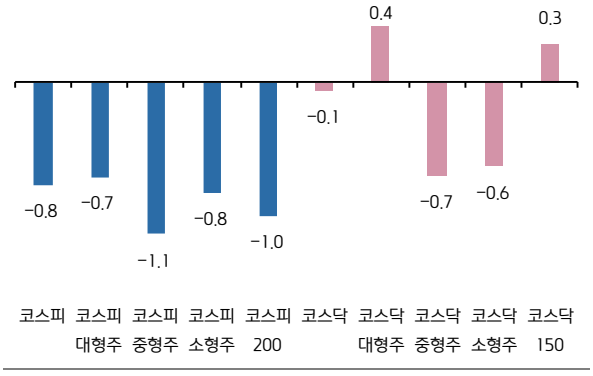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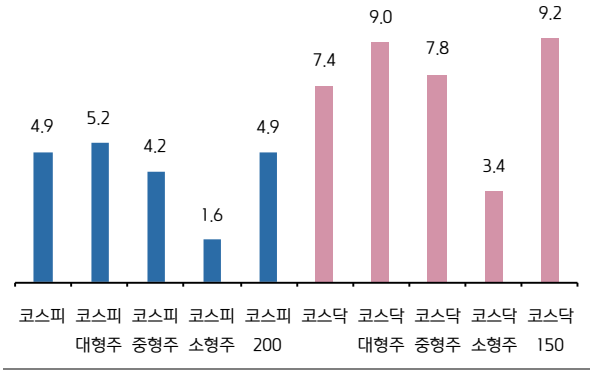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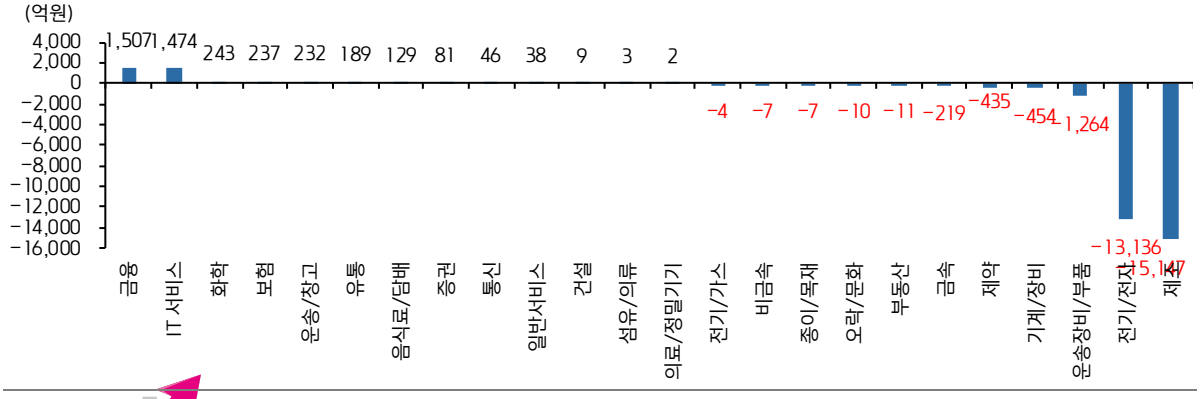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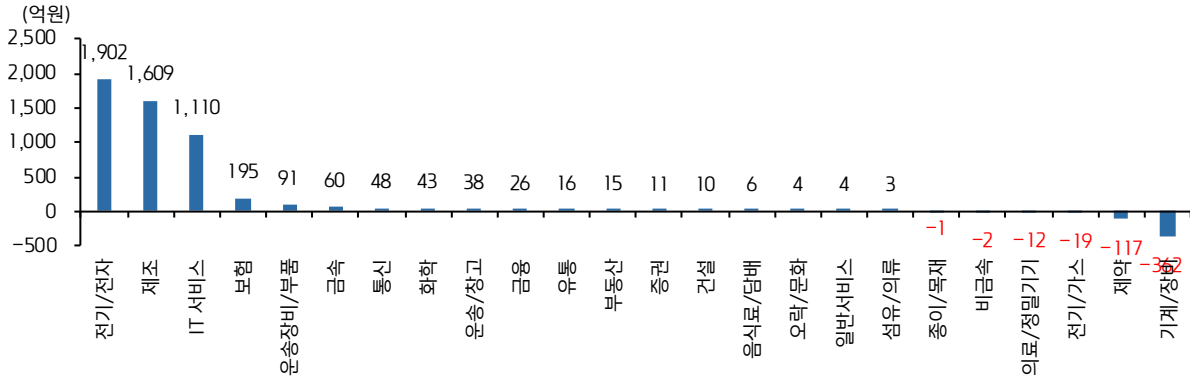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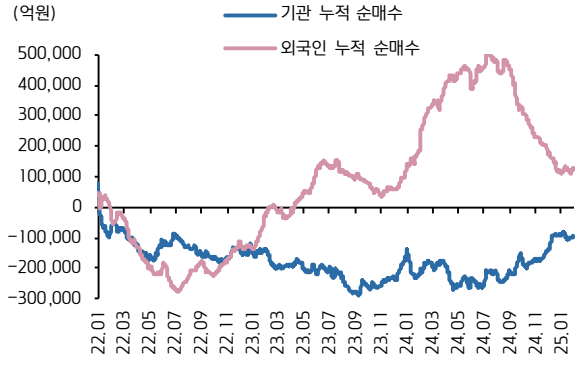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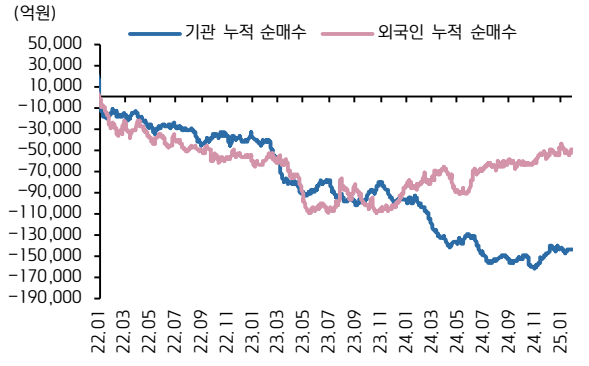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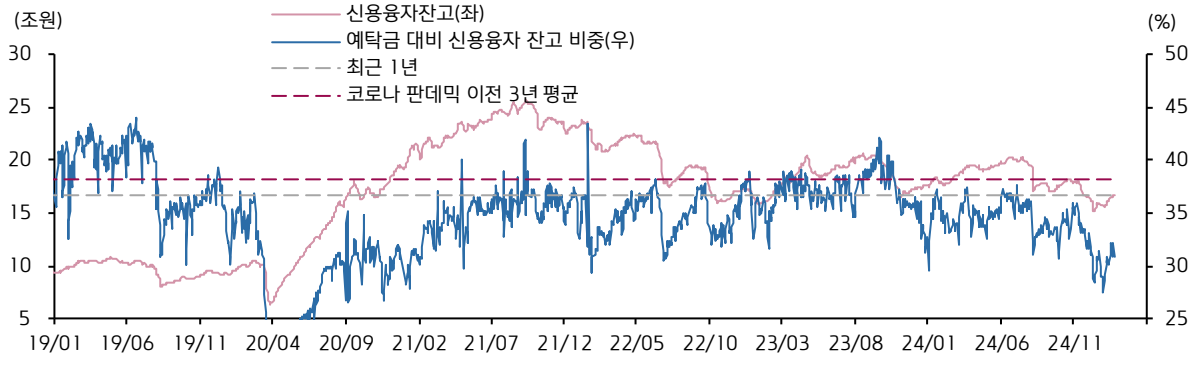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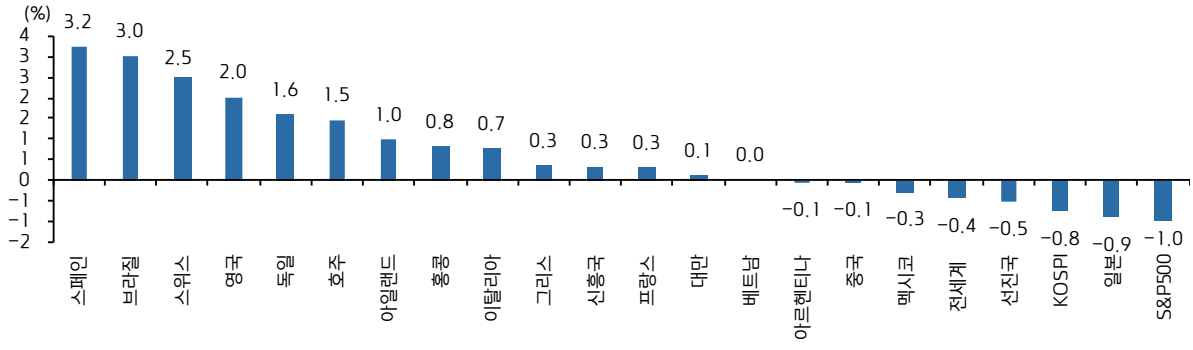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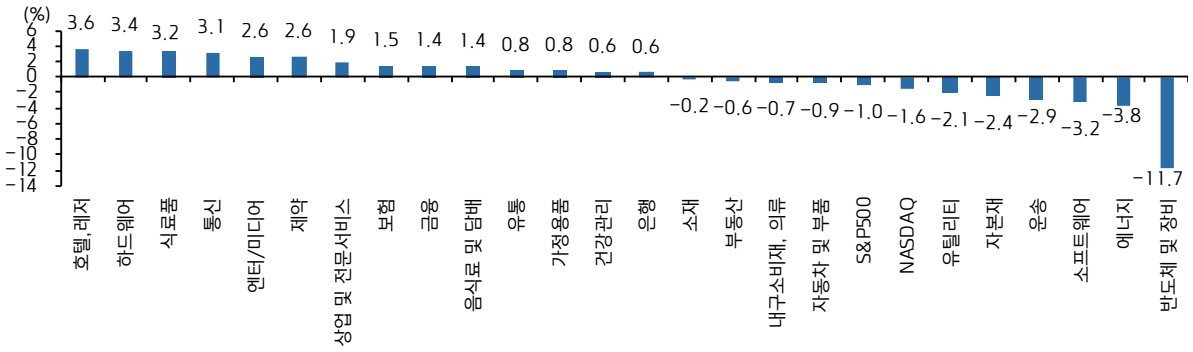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